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통합 제12대 회장 선출 입후보 신청서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이 성 곤
	소속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위 또는 직책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최종 학력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물리탐사)	공학박사	1998

대표 경력 (5가지)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책임연구원 (2000~현재)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물리탐사공학과 겸임/전임교수 (2018~2021)
3	환경부 먹는샘물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 (금강유역·한강유역·원주환경청)
4	원자력안전기술원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평가 외부자문위원
5	미국 University of Utah, CEMI 방문연구자 및 Research Fellow (2003~2005)

우리 학회 활동내역

기간	직책 또는 역할	담당업무
2023.01~ 현재	부회장	제10대, 제11대 이사회 임원 활동
2021.01~2022.12	특별위원회 미래기술위원장	제9대 이사회 임원 활동
2019.01~2020.12	기획이사	제8대 이사회 임원 활동
2017.01~2018.12	학술위원회 위원장	제7대 이사회 임원 활동
2015.01~2016.12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6대 이사회 임원 활동
2015.01~2016.12	편집위원회 위원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논문 심사·편집
2013.01~2014.12	학술위원회 위원장	제5대 이사회 임원 활동
2010.01~2012.12	국제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	KSEG-SEGJ-ASEG 공동발간 국제학술지 「Exploration Geophysics」 논문 심사·편집



출마 소견

존경하는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고체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현상의 규명에서부터 에너지 자원 탐사, 사회 인프라를 위한 지반·환경 조사, 지질재해 대응, 그리고 극한지역과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발전과 산업적 기여를 함께 이루어 온 대한민국 지구물리·물리탐사 분야의 대표 전문가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전략광물 확보,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그리고 AI 기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분야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키는 동시에, 학회가 산·학·연·정을 연결하고 국가적 현안에 기여해야 할 새로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결하는 학회, 신뢰받는 기술’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 네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1. 산·학·연·정이 함께하는 협력 허브 구축

대학은 인재와 기초연구를, 산업계는 현장 기술을, 연구기관은 공공 연구를, 정부와 공공기관은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강점은 다르지만, 이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기회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회는 산·학·연·정을 잇는 중립적 협력 플랫폼이 되어 정기적인 기술 포럼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원과 회원사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2. 물리탐사 자료 획득·해석 기술의 표준화 선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해상풍력, CCS, 지반조사 등 국가 핵심 사업에서는 신뢰성 있는 물리탐사 자료의 확보와 정량적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학·연·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자료 획득, 품질관리(QA/QC), 처리 및 해석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회의 기술적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3. 물리탐사 기술의 객관적 가치와 전문가 위상 제고

지구물리·물리탐사는 국가 안전과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임에도 그 전문성과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회는 객관적 기준과 표준을 마련하여 지구물리탐사 기술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회원과 회원사의 연구와 기술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분과위원회의 내실화와 미래 역량 강화

유가스·CCS, 전략광물·환경탐사,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해상풍력·지반조사, 지진·지질재해, 극한지역·신기술 등 기존 6개 분과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분과 간 공동 워크숍과 융합 연구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사 데이터 해석과 3D·4D 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지구물리 기술을 선도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가장 큰 자산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저는 소통으로 연결하고, 표준으로 신뢰를 만들며, 협력으로 미래를 여는 학회를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와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통합 제12대 회장 후보 이성곤

제출일 : 2026년 8 월 31 일

성명 : 이 성 곤

이 (서명)

